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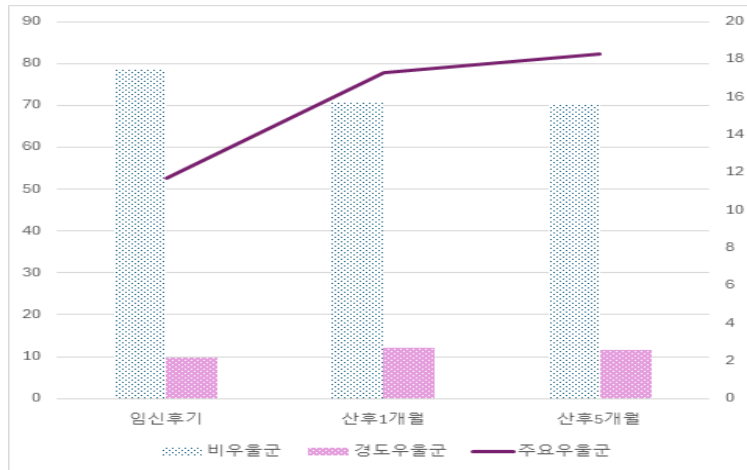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임신부의 우울 증상 변화 유형 및 양육 특성 분석」 토론문

김증임(한국모자보건학회 이사장)

우리나라에서 출산 후 일주일 이내 산후우울 위험군은 42.7%, 출산 후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비율 52.6%로 산후우울은 우리나라 정신보건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산후우울 발생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 도출된 요인들을 통해 비교가 가능하다고 본다. 본 연구대상자는 24세 이하 2.2%, 40세이상 8.1%, 25-29세 14.6%, 35-39세 29.1%이며, 30-34세가 46.0%로 가장 많은 것으로 연령에 따른 차이를 기준선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본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를 보면, 한국영유아교육·보육패널(K-ECEC-P)의 기초조사Ⅱ, 생후 1개월 조사 및 1차년도 본조사 자료의 1,911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아주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소중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영유아교육·보육패널패널' 연구팀의 건실한 연구설계와 성실한 조사결과 덕분이다.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살펴보면, 본 연구는 개인적인 변화패턴을 보고 유사한 집단끼리 묶어 이질적인 성장(변화) 곡선을 보이는 개인들의 집단을 구분하는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하여 우울 변화 양상 유형을 도출하였다. 즉 본 연구를 통해 임신 후기, 산후 1개월, 산후 5개월 시점의 자료분석 결과, 임신부의 우울 변화 양상은 우울 증가형(10.0%), 우울 유지형(10.9%), 비우울 유지형(73.4%), 우울 감소형(5.7%)의 4가지 유형이 있음을 밝혔다.

한편, 다른 연구에서 출산 후 1개월 시점에 가장 낮아지고, 산후 4개월 시점에 다시 증가하였다고 했는데, 세 시점(임신후기, 산후 1개월, 산후 5개월)의 자료만 있어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점이 있다. 비우울군 78.5%가 산후 1개월경에 70.5%로 감소된 8.0%는 백분율로만 봤을 때 주요 우울군으로 변화(5.6%) 혹은 경도 우울군으로 변화(2.4%)로 추산되어 임신 중 우울이 없었어도 산후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의미 있는 결과는 임신우울변화 양상 4가지 잠재계층에 따라 ‘산후 5개월경’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모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먼저 양육스트레스는 ‘우울 유지형’(3.49), ‘우울 증가형’(3.21), ‘우울 감소형’(2.69)로 우울 변화 유형과 관계없이 우울이 있는 유형이 ‘비우울 유지형’(2.28)보다 모두 양육스트레스 점수가 높았고 특히 계속 우울이 있었던 ‘우울 유지형’의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지각한 것으로 나타나 산후 우울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양육행동은 ‘비우울 유지형’(4.02)의 점수가 ‘우울 감소형’(3.88), ‘우울 유지형’(3.59), ‘우울 증가형’(3.74)보다 높게 나타나 우울 유형과 관계없이 우울이 있을 경우 우울이 없이 지낸 임신부보다 양육행동점수가 낮았다.

이상에서 우울유형과 관계없이 우울이 있던 3가지 우울 유형이 ‘비우울 유지유형’보다 양육스트레스는 높고, 양육행동은 낮은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양육행동이 높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출산 후 빠른 시기에 우울을 측정하여야 한다는 점, 우울이 있는 산모는 우울의 원인을 조기에 제거해주어야 한다는 점, 행복감을 높이는 중재가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양육스트레스는 산후 1개월(2.53)보다 산후 5개월(2.92)에 증가되었고, 양육행동은 산후 1개월(3.93)보다 산후 5개월(3.81)로 다소 감소된 점에서 추후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의 상관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